

참 선비를 닮은 소수서원 학자수(學者樹)

스토리 학자수 소나무
스토리발굴 안중열



〈소수서원 학자수길〉

춘
풍 도리들아 고운 양자 자랑마라
창송(蒼松) 녹죽(綠竹)을 세한(歲寒)에 보려무나
정정(亭亭)코 낙락(落落)한 절(節)을 고칠 줄이 있으라

-김유기, 악학습령(樂學拾零) 중에서-

봄철 앞다투어 피는 꽃은 한 줄기 바람에도 몸을 누이며 추풍 낙화처럼 떨어지지만 세한 절기에도 곧게 우뚝 서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는 낙락장송 소나무의 결기를 노래한 시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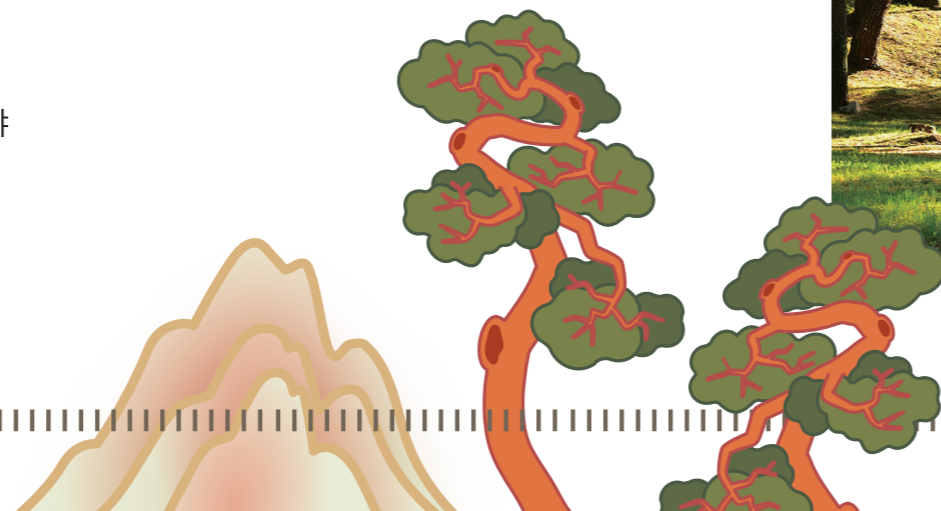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사적 제55호 경북 영주 소수서원 매표소를 지나 발을 들이면 죽히 수백 그루는 뽕직한 적송 소나무가 하늘을 가득 가리고 있는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걸음 옮길 때마다 울울창창 곧게 자란 소나무들이 나에게 건네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소나무가 사람에게 내어주는 솔향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 중종 38년인 1543년, 풍기 군수로 임명된 주세붕은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최초로 도입하여 조선 왕조의 국가 이념에 이르게 한 회헌 안향 선생이 뛰어놀던 죽계천 옆 옛 숙수사 절터에 백운동서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공터에는 붉은 적송 1,000여 그루를 심으며 학자수(學者樹)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소수서원 소나무에는 ‘늘 푸른 저 솔잎처럼 어떤 회유와 시련에도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하라’ 는 뜻의 학자수(學者樹) ‘겨울을 이겨내는 저 소나무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선비가 돼라’ 는 세한송(歲寒松)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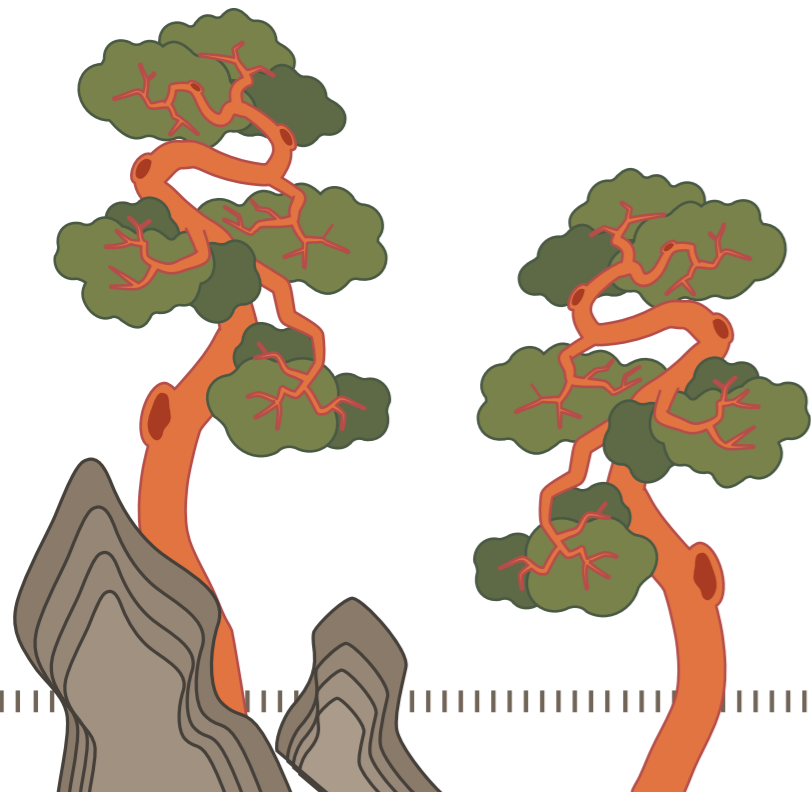


〈학자수 풍경〉



그중 세한송(歲寒松)에는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조선 후기 철종 때 순흥 땅으로 유배해 왔던 영의정 권돈인은 서원의 소나무를 수시로 그려 오랜 친우였던 추사 김정희에게 보냈고, 이때 그려준 소나무는 후일 추사의 '세한도'에 등장하는 소나무의 밑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심었던 천여 그루의 소나무 중 오랜 세월이 지나며 한겨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병들고 늙어 지금은 800여 그루만 남아 청정한 기상을 잃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보면 서원 소나무에는 소나무의 수량을 세기 위해 꽂아 놓은 번호표를 볼 수 있으며 후계목을 기르기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서원 안으로 들어와 선비들이 공부하다 머리를 식히던 소헌대 주변 소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공부를 하고 싶어 서원 안을 들여다보는 형상을 하고 있어 과연 학자수라 부를만하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울곧은 지조를 자랑하던 영주 선비를 상징하는 학자수 소나무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늘 푸르게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